

‘오타쿠’는 지금 주류로 진화 중



프라모델 제작·밀리터리 마니아 등 인식 변화 속 경계 사라지며 주목



영화 '베놈'의 빌런 베놈 디오라마.

흔히 '서브컬처(Subculture)'라 하면 하위문화 혹은 주류 문화에 복속된 마이너한 취미생활을 떠올리기 십상이다. 프라모델 제작이나 코스프레, 철도·항공, 밀리터리 마니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화적 존재감을 드러내며 '오타쿠 문화'로 치부되며 가치를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최근엔 인식이 바뀌고 주류·하위문화간 경계가 없어지면서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두 달여 전 문을 연 광주 지엔스튜디오(동구 충장로 22번길 8-12, 4층)는 임중현 공예작가가 상주하는 3D피규어 제작 공간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화 '블랙팬서', '데드풀', '스파이더맨'과 '베놈', '아쿠아맨' 등 피규어 모델 20여 점을 볼 수 있는데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설계한 뒤 3D프린터로 출력한 작품들이다.

"키덜트 문화가 각광받으며 프라모델 등에 관심이 늘어난 것을 실감해요. 커플들도 공간을 찾아 주곤 해 의욕적으로 작업하는 중입니다"

흔히 '덕업일치'(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것)를 실천하고 있는 임 작가는 "좋아하던 일이 업이 되어 행복하지만 고되기도 하다"며 "한 작품을 만드는 데 보통 한 달 정도씩 걸리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말했다.

영화 속 명장면을 배경까지 구현한 '디오라마'도 일품. 평균 수 백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핑거스탑으로 아이언 맨을 절망케 하는 영화 '엔드 게임'의 씬과 20세기 말 일본 다크 판타지의 정수 '베르세르크', 영화 '위쳐'의 기사(게롤트)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최근 방문한 '오타쿠 연구소(서구 천변로 108번길)'는 덕후들을 위한 '성지'다. 정다운 미술작가가 오픈스튜디오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작업실은 데이트코스 잘 알려진 청춘발산마을 한 복판에 위치해 있어 의외였다. 마치 이질적인 것이 공존하는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건물 자체로 재현하는 듯했다.

정 작가는 "발산마을이 연인들 데이트 코스라고 알려져 있지만 '2D 애인'(애니메이션 캐릭터)과

임중현 작가 '광주 지엔스튜디오' 데드풀 등 3D피규어 20여점 제작

정다운 작가 '오타쿠 연구소' 건물에 애니메이션 캐릭터 재현

광주관광재단, 14~17일 DJ센터 코스프레 뽐내는 '쥬씨페스티벌'



밀덕(밀리터리 덕후)과 전위예술가의 중간 즈음에 있는 정다운 작가의 모습.

함께 오셔도 좋다"며 "말이 그렇지 생각보다 3D 애인(실제 애인)과 찾는 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부에 기차선로를 만들어 '골방기차 여행구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초상화도 그려 주는 등 여러 예술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스튜디오를 소개했다.

서브컬처와 '오타쿠'라는 말이 함의하는 부정적 뉘앙스에 대해 묻자 정 작가는 "이쪽 세계에서는 '존중하시죠, 취향입니다'라는 밈(Meme)이 나오는 등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오타쿠 문화의 원조 격 일본에서도 '오타쿠'라는 말이 마냥 긍정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점차 부정의 의미가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일반인이 보기에 다소 특별해 보이는 그는 독특한 복장을 입은 코스어들과도 교류해 왔다. TV에서 소비된 오타쿠 이미지와는 달리 함께하다 보면 연애 중이거나 '노멀'한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미디어 등으로 인해 대중에게 호도된 측면이 있지만 "오타쿠 이미지를 넘어 그들에게 애정어린 시선을 보낼 필요가 있다"며 웃어 보였다.

직접 서브컬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코스어(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코스튬(의복)을 뽐내는 '2023 쥬씨페스티벌 IN에이스페어'는 광주관광재단이 주관하는 행사인데 14일부터 17일까지 3일에 걸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행사장에서는 VR 등 게임 체험존과 청년 공예품을 만드는 '세모마켓', 일러스트 작가가 진행하는 드로잉 쇼도 볼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 '최애의 아이', '양상블스터즈', '프로젝트 세카이' 캐릭터로 분장하고 펼치는 댄스경연대회도 펼쳐질 예정이다.

쥬씨페스티벌 이동민 대표는 "인구수 감소와 코로나를 겪으며 '코스프레'는 개인의 취미에서 가족 단위의 행사로 변화하고 있다"며 "가족들의 손을 잡고 찾아와 행사를 즐겨보셔도 좋다"고 말했다.

서브컬처는 주류와 하위문화라 부르는 경계를 점차 허물고 있다. 율가를, 문화의 또 다른 이면에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

맑은 듯 다른 '문학과 미술'

시전문지 '시와사람' 가을호 발간

문학과 미술은 장르를 다르지만 시어와 물감으로 작품을 형상화한다. 다른 재료를 활용해 작품을 완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각기 고유한 미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지역 시전문지 '시와사람' 가을호(통권 109·사진)가 나왔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융복합시대 문학과 미술이 지닌 친연성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박덕은 시인(화가), 강경호 시인(문학평론가), 강나루 시인(편집장)이 나눈 '문학과 미술의 친연성과 독자성'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박덕은 시인은 자신의 문학과 미술 세계에 대해 친연성과 독자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했다.

그는 "문학과 미술은 예술친구들이다. 문학은 글로, 시는 시어로, 미술은 물감으로, 비구상은 상상력으로 이뤄낸 예술이다"며 "그 미적 가치, 그것



과 맛은 같은 종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

강경호 시인은 이에 대해 "문학과 미술은 맑은 듯 다른 장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로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도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번 호에는 '시인카페'에 김청수 시인을 소개했으며, '신작초대석'에 김홍 시인의 '침착하게 불사르기' 등이 게재됐다. '이 시집을 주목한다'에서는 강대선 시인이 김성룡의 '숲은 레시피가 다르다', 김성신 시인의 '등그렇게 날아야 빠져나갈 수 있다'를 조명했다.

또한 '지난 계절의 좋은시' 코너에는 이재연 시인이 '시간의 그림자와 슬픔의 정서에 순응하는 존재'라는 주제의 글을 수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안녕하세요~ 고려인마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16일 문화마당...토론·음식 체험 등



고려인문화관 '결'에 있는 전시장.

광주 고려인마을은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선조들의 유지를 받들어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한 동포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이곳에는 고려인들의 역사와 삶의 방식 등 나름의 정체성과 문화가 깃들여 있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은 오는 16일(오후 2시) 14회째 지역문화교류마당 '환대를 가득안고 만나는 고려인마을! 안녕, 즈드라스트부이쨌'를 개최한다.

'즈드라스트부이쨌'는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를 뜻한다. 실제로 고려인마을에서 자주 쓰이는 일상 언어다. 주제가 말해주듯 이번 문화마당은 광주의 정체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기획됐다.

탐방에 앞서 정성구 UCL도시문화연구소 대표를 초청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현 주소와 발전 방안, 고려인 마을의 역사성과 문화마을로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다. 이어 고려인들의 이주사 및 공동체 문화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월곡동 고려인 문화관 '결' 관람이 진행된다. 또한 고려인이 직접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 음식도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탐방 코스에는 지난해 흥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봉환된 1주년을 기념해 흥상을 세웠던 '흥범도 공원'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다.

선착순 30명이며 희망자는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무처(062-234-2727)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비는 2만원(회원 1만원)으로 식사비 및 답사비용 모두 포함된다.

김덕진 이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고려인마을이 지닌 역사성, 삶의 방식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